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 검토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김희동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제1저자)

백목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공동저자)

오은하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교신저자)

* 이 논문은 제76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2.4.16.)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각 교과 교육 실행의 토대로서 해당 교과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평가의 준거이자 교과서 개발의 근거로 기능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용어가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가가 곧 교육과정 내용의 성격을 규정하고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규정한다(박영민, 2004: 182). 그러므로 타당하고 효율적인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와 진술은 명확해야 한다. 이는 국어교육 실행 주체들 간의 소통성을 높이고 교과서 집필 등 다양한 국어교육 실행 장면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국어과에서 주요 용어를 명명하고 그 개념을 밝히려는 시도는 주로 교육과정(박영민, 2004; 이정찬, 2018; 임규홍, 2002; 최숙기, 2019; 최지현, 2005, 2006)과 교과서(유성호·유충열·박영민, 2004) 노출 용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통일성, 응집성, 일관성 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연구들(박영민, 2004; 유성호 외, 2004; 이재원, 2001; 임규홍, 2002)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용어는 여전히 영역이나 교육과

정 문서의 항목별로 개념과 활용 양상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국어과 주요 용어 중 타당성과 적절성에 주목한다. 국어과의 기본 목표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것(교육부, 2015: 4)’이라고 할 때, 담화 텍스트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국어 능력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진술과 교과서 단원 구성에 이들 용어가 적확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학년 1학기 국어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단원(교육부, 2015나)을 구성하는 두 성취기준(교육부, 2015 가)은 이러한 실태를 잘 보여준다.¹⁾

- [6국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6국03-0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마련한 귀납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통찰에 의존한 연구 방법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두 용어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점검하여 새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단원 구성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읽기 성취기준은 내용 측면에서 타당성, 표현 측면에서 적절성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쓰기 성취기준에서는 내용(근거) 측면에서 적절성, 표현 측면에서는 알맞음을 제시하고 있다.

II.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논리학, 수사학, 화용·대화론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그중 본고에서 학술적으로 참고할 만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Haack(1978/1986: 17): 타당성의 관계란 전제가 참이고 동시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관계(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 김혜정(2002: 311): 필자가 주장하려는 텍스트의 의미 내용이 독자가 속한 담화공동체에 적절한 것인지 혹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텍스트 내용에 대한 평가: 타당성, 합리성 판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인용함.)
- 민병근(2004: 23): (형식) 논리학에서는 맥락없이 전제와 결론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타당성을, 수사학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일정한 기준, 그리고 대화론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에 타당하게 도달하게 하는 외적 기준까지를 합리적이라고 본다.
- 김봉순(2008: 191): 인식적 비판에서 모호하게 가려진 이데올로기나 이것을 드러내는 현상은 '타당하지 않은 것'... 등으로 평가적인 비판이 선행되었음이 전제되고, 비판 주체가 가진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나 이런 이념이 구현된 현상은 '타당한 것'... 등으로 또한 이미 평가된다.

* 괄호 안의 문구, 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위의 논의를 살펴보면,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성 혹은 주장과 근거의 관계성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전제가 참이고 동시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을 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보증 능력을 지닐 때 그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국어교육에서는 타당성을 텍스트나 담화의 형식적 조건보다는 내용적 조건에 관계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언어 사용자는 텍스트에 담긴 의미 내용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텍스트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 및 판단하기도 한다.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타당성 관련 교육 내용으로 비형식 논리학을 포괄하는 논증의 타당성 측면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인 바와 같이, 형식 논리학에서 말하는 분석 논리, 논리 체계로서의 타당성은 결코 좋은 논증을 보장하지 못하고(민병곤, 2004: 28) 언어 외적 세계에 대한 포섭이 불가능하며, 형식적 논리 체계의 요구가 교육적 상황에서의 요구나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박선환, 1999: 10) 국어교육에서는 비형식 논리학을 대폭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국어교육 내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독립적인 논의가 없고, 타당성을 개념화하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그러한 독립적 논의가 철학적, 수사학적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는 내용적, 방법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절성의 개념 탐색에 참고할 만한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660)[국어교육학사전]: 언어 표현이 의사소통 상황에 알맞게 쓰이는 정도
- 이성영(1994: 11-16): 문맥이나 상황 맥락상의 요구나 목적에 발화가 부합하는지의 여부
- 전은주(1999: 86-87): 발화된 텍스트가 상황과 표현 의도에 맞게 상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텍스트적인 요인
- 김광해·권재일·임지룡·김무림·임철성(1999: 481-488): (언어적) 조립 규칙에는 잘못이 없지만 표현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의 문제

- 오현진(2008 ㄱ: 45): 의사소통의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자신의 언어 표현과 이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 밑줄 표시 및 괄호 안 문구는 필자가 추가함.

위의 논의를 살펴보면, 적절성은 상황이나 맥락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정의되며, 구어적, 문어적 소통 상황에 두루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언급되는 상황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 목적, 대상, 상황의 공식성, 화자나 필자의 사회적 역할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적절성은 상황적, 행위적 측면을 고려하는 담화, 텍스트의 이해 및 표현과도 깊이 있게 관련된다.

적절성의 기반 이론²⁾은 사회언어학, 화용론, 외국어 교육, 제2언어 교육 등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국어교육에 영향을 미친 이론은 의사소통 능력 이론, 화행 이론, 적합성 이론으로 여겨진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개념은 Hymes(1971)에서 처음 제시된 후로 Bachman(1990), Canale(1983), Canale & Swain(1980), Celce-Murcia(1995), Trask(1999), Widdowson(1996/2001) 등을 통해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Hymes(1971)가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 판단의 근거 중 ‘상황·문화적으로 적절한가(appropriate)’가 적절성의 개념과 관련된다. 이는 의사소통 상황인 배경, 참여자, 행위 등에 대한 것으로 어떤 표현이 쓰이는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적절성은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하는지에 관한 능력을 습득할 때 길러진다.

화행 이론(Speech Act Theory)은 Austin(1962/1992)에서 시작되어 Searle(1969)에 의해 완성된 이론이다. Austin(1962/1992)에서는 언어를 ‘언어 행위’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적

2) 이 부분은 오현진(2008 ㄱ), Sperber & Wilson(1986/1993)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행위(locutionary act), 수행적 행위(illocutionary act),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중 수행적 행위가 적절성과 관련된다.

수행적 행위는 현실 세계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되는 언어 행위를 말한다. 이는 ‘선언한다, 약속한다, 명한다, 처한다’ 등과 같은 수행 동사와 함께 실행되어 수행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수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Searle, 1969)을 확보해야 하며, 적정 조건은 수행적 발화의 사실 여부보다는 효력이 있는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박영순, 2007: 23).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Sperber & Wilson(1986/1993)에 의해 처음 주장된 이론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인간의 발화 해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최대한 적합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며, 청자는 파악한 맥락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최대한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청자의 추론에 동원되는 배경지식은 단순히 이전 경험이나 문맥적 지식만이 아니라 청자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박영순, 2007: 54-58). 적절성 기반 이론은 주로 구어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읽기·쓰기의 문어 상황을 포괄한다. 텍스트 기반 소통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중요하며, 나아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어과에서 타당성과 적절성은 비판적 사고 논의(김명숙·박정·김광수, 2001; 성일제·곽병선·박태구·임선하·양미경·한순미 외, 1987; 허경철·김홍원·조영태·임선하·양미경·한순미, 1990; Bloom, et al., 1964; D'Angelo, 1970; Ennis, 1962; McPeck, 1981; Paul & Elder, 1990 등)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비판적 듣기·말하기(김미선, 2015; 김재봉, 2019, 2021; 이성규, 2008), 비판적 읽기(김봉순, 2008; 김유미, 2015; 김혜정, 2002; 안부영, 2009), 비판적 쓰기(김경화, 2020; 백혜선, 2019; 서영미·김경숙, 2021)를 수행

할 때 타당성과 적절성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된 교육 내용이자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비판 및 감상하며 듣기의 방법 중 하나로 ‘정보의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하기(김재봉, 2019: 12-19; 이성규, 2008: 40)’가 제시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타당성’과 ‘적절성’은 학문의 뿌리가 깊고 교육적 논의에서 주요한 용어이나, 현재까지는 용어 자체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극히 드물다. 타당성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적절성의 개념에 대한 탐구로는 오현진(2008ㄱ, 2008ㄴ) 외의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당성’, ‘적절성’을 활용한 성취기준 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타당성과 적절성의 교육과정 적용 양상

‘타당성’과 ‘적절성’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표 1〉). 타당성은 4차 교육과정에서, 적절성은 3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타당성은 4학년부터, 적절성은 2학년부터 성취기준에 제시되었다.

〈표 1〉 역대 교육과정 중 ‘타당(•)’, ‘적절(▲)’이 제시된 성취기준

영역 학교급 교육과정	듣기			말하기		
	초	중	고	초	중	고
3차				▲	▲	
4차	•	•	•		•	
5차	• ▲	• ▲	•	▲	▲	
6차	▲	▲	• ▲	▲	▲	▲

7차		▲	•	▲		▲	•	▲		▲		▲
2007		▲						▲				
2009	•	▲						▲				
2015		▲	•	▲				▲	•	▲		
영역 학교급 교육과정	읽기				쓰기							
	초		중		고		초		중		고	
3차												
4차			•									
5차				▲								
6차				▲					▲		▲	
7차	•		•	▲	•	▲	•			▲		▲
2007	•		•							▲		
2009	•			▲					•	▲		
2015	•					▲			•		•	

〈표 1〉³⁾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지속적으로 등장할 만큼 두 용어는 국어교육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도 타당성과 적절성의 명확한 개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김유미(2012: 51-52)는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 비판적 읽기 관련 성취기준을 분석하면서, 관련 ‘성취기준을 달성하려면 ‘타당성’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타당성’이라 말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어디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3) 3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취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문교부, 1974, 1979, 1981, 1988ㄱ, 1988ㄴ; 교육부, 1992ㄱ, 1992ㄴ, 1997, 2015ㄱ; 교육과 학기술부, 2009).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는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기본, 심화)’가 성취기준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지적하였다. 이정찬(2016: 415-416)도 ‘지금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이 부분(타당성, 적절성 등의 기준으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따져 보는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기준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적절성과 타당성의 이론적 교집합(사회·문화적, 비판적 접근)이 존재한다는 점, 적절성의 경우 교육적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 용어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어교육계에서 두 용어의 의미를 아직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용어들이 국어교육 내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응용 연구, 파생 연구, 교육적 적용 등을 고려할 때 개념과 활용에 대한 탐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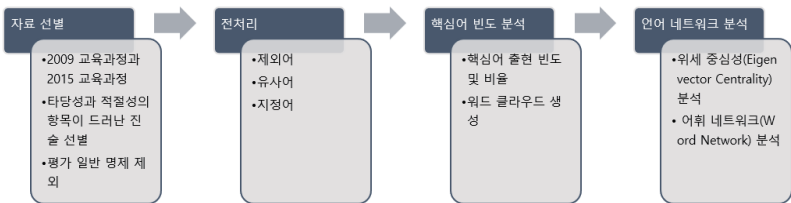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방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과 적절성의 활용 양상과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용어의 위상과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수의 키워드와 키워드들 간의 관계,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빅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응용한 분석 방법으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자료의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 간의 인접성을 기준으로 단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주는 영향력과 방향성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노드(단어) 간의 관련성과 상호작용 정도의 분석에 활용된다(Freeman, 2004).

또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데이터의 전체 구조뿐만 아니라 특정

단어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어, 단어가 담론을 형성하는 구조, 즉 ‘중심성’이라는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Freeman, 1979: 2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넷마이너(NetMiner) 4.5를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⁴⁾



〈그림 1〉 연구 절차

연구는 크게 4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2009 개정,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ㄱ)의 듣기·말하기(화법), 읽기(독서), 쓰기(작문) 영역 내용 중 ‘타당성’과 ‘적절성’을 포함한 진술을 선별, 수집하였다.⁵⁾ 다만 타당성의 의미가 평가 일반의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평가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어야 한다.”와 같이 ‘타당도’의 의미로 쓰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적절성’ 관련 내용 역시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와 같은 진술은 제외하였다.

둘째, 제외어, 유사어, 지정어 사전 등록 등 비정형 텍스트의 전처리 작

4) 넷마이너는 그래프 마이닝 기법, 통계분석 기법, 기계 학습 기법에 특화된 전문 SNA 도구로 분석 결과를 즉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도 넷마이너 등을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 기반의 다양한 연구(기혜선·정옥년, 2021; 노들·옥현진, 2020; 민병곤, 2018; 박기현, 2016; 유영의·장우호, 2021; 장성민, 2021; 편지윤, 2021)에 활용되었다.

5) 분석 대상을 세 영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실제 교과서 단원 구성 시 이들 영역 간 통합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용어의 개념이나 활용이 문학, 문법 영역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을 실시하여 추출된 단어 중 일부를 유목화, 선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일음절어(때, 즉, 예 등),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용어들과 직접적으로 의미 관계가 없는 단어(국어교육, 성취기준, 학년군, 지도 등)는 제외하였다. 또한 유사어 처리는 ‘적절히’를 ‘적절하게’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자료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넷마이너 프로그램이 접미사 ‘-성’이 결합한 명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성’, ‘타당성’과 함께 ‘합리성’, ‘신뢰성’, ‘공정성’을 지정어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적절한’과 같은 활용형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성’ 관련 자료는 형용사를 분석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셋째, 어휘 출현 빈도 및 비율을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각 용어와 관련된 국어과 교육과정 진술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그 빈도와 비율을 워드클라우드와 같은 표와 이미지 등으로 나타내었다.

넷째, 단순 빈도 중심의 해석은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행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연결망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어느 정도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prestige centrality) 등으로 측정한다(이수상, 2013: 255-276; Freeman, 1979).⁶⁾ 이 중 위세중심성은 한 노드가 영향력이 높은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 방법에 따라 파워중심성(power centrality)과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의 핵심어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킹 분석을 통하여 해당

6) 연결중심성은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를 나타내므로 그 순위가 높으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Opsahl, et al., 2010). 근접중심성에서 근접도(closeness)는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지정된 단어와 다른 단어들 간의 거리 개념으로, 근접중심성이 높으면 주요 단어와의 연결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의제와 담론 형성에 영향력이 크다(Freeman, 1979)고 본다.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개자(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이들은 잠재적으로 정보를 필터링(filtering)하는 중개자,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이수상, 2013: 262).

키워드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진술을 검토하여 각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근거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역을 밝히는 데 근접중심성에 가중치를 부여한 위세중심성이 가장 적절한 중심성 분석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연결된 이웃 노드의 중심성 지표를 고려하여 중심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의 전역적 수준에서의 중심성인 근접중심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이수상, 2013: 259-275), 이를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노드를 파악할 수 있다(노들, 2021: 204; 이수상, 2013: 259).

중심성 분석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어휘 네트워크(Word 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문장 내 단어들의 동시 등장 정도(공출현 빈도)를 이용하여 단어쌍 중심으로 의미연결망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타당성’, ‘적절성’의 공출현 빈도를 살펴 교육과정에서 쓰인 개념 검토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언어 네트워크 분석만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와 실제 교육과정 진술을 상호보완적으로 검토하며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귀납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IV.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

1. 타당성의 개념

타당성을 중심으로 선별한 자료에 출현하는 키워드들을 빈도순으로 30위까지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수집된 단어는 347개, 빈도 백분율(%)은 전체 빈도수(1,495건)에 대한 비율이다.

〈표 2〉 ‘타당성’ 관련 키워드 출현 빈도 및 비율

순	키워드	빈도(%)		순	키워드	빈도(%)	
1	글	70	(4.7)	14	과정	18	(1.2)
2	주장	68	(4.5)	17	해결	17	(1.1)
3	타당성	58	(3.9)		제시	17	(1.1)
4	근거	40	(2.7)		매체	17	(1.1)
5	설득	36	(2.4)	20	논제	15	(1.0)
6	평가	33	(2.2)		정보	15	(1.0)
7	비판	28	(1.9)	22	전략	14	(0.9)
8	이해	27	(1.8)		논리	14	(0.9)
9	판단	26	(1.7)	24	특성	13	(0.9)
	문제	26	(1.7)		신뢰성	13	(0.9)
11	토론	24	(1.6)		말	13	(0.9)
	능력	24	(1.6)		광고	13	(0.9)
13	내용	19	(1.3)	28	쟁점	12	(0.8)
14	자료	18	(1.2)		고려	12	(0.8)
	의견	18	(1.2)	30	공정성	11	(0.7)

‘타당성’ 관련 교육과정 진술에는 ‘글’, ‘주장’, ‘근거’, ‘설득’, ‘평가’, ‘비판’, ‘이해’, ‘판단’, ‘문제’, ‘토론’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논제’, ‘논리’, ‘신뢰성’, ‘광고’, ‘쟁점’, ‘공정성’ 등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이 설득적 담화 텍스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키워드의 출현 빈도만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의 개념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통해 의미연결망을 분석하고, 각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중심성 지수 순위의 ‘변화’를 함께 제시하였다(〈표 3〉).⁷⁾ 이 ‘변화’를 통해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

7) 예를 들어 ‘공정성’은 〈표 2〉에서 30위였으나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에서는 12위로, 18

항력이 크거나 낮은 키워드, 각 용어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추론할 수 있다.

〈표 3〉 ‘타당성’ 관련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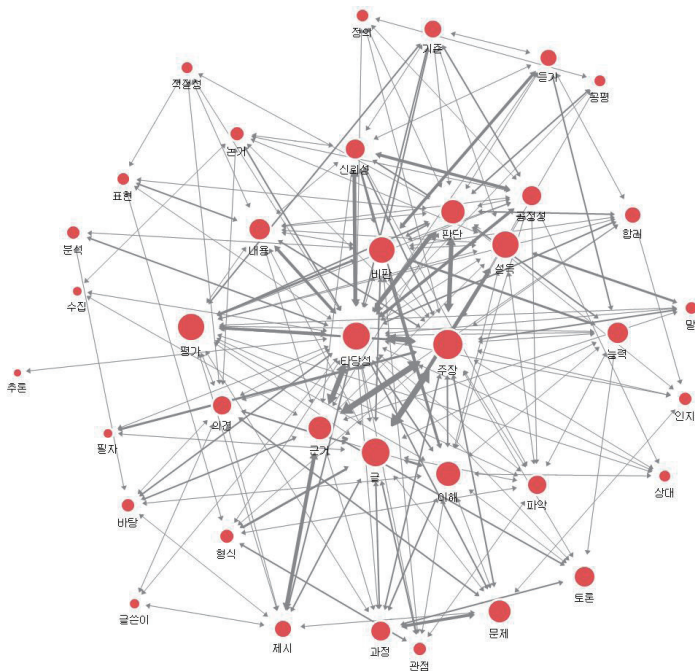
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변화	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변화
1	주장	0.455	1↑	16	문제	0.108	7↓
2	타당성	0.427	1↑	17	능력	0.085	6↓
3	근거	0.366	1↑	18	합리	0.082	30↑
4	글	0.303	3↓	19	말	0.082	5↑
5	판단	0.245	4↑	20	기준	0.078	33↑
6	평가	0.170	=	21	의견	0.066	7↓
7	신뢰성	0.166	17↑	22	논리	0.066	=
8	이해	0.161	=	23	파악	0.065	8↑
9	비판	0.158	2↓	24	토론	0.063	13↓
10	설득	0.157	5↓	25	논거	0.060	20↑
11	내용	0.138	2↑	26	필자	0.057	42↑
12	공정성	0.126	18↑	27	형식	0.055	8↑
13	제시	0.125	4↑	28	듣기	0.055	24↑
14	자료	0.110	=	29	전략	0.054	6↓
15	과정	0.110	1↑	30	바탕	0.054	27↑

우선, 〈표 3〉에서 중심성 지수 순위가 높은 ‘주장’, ‘근거’, ‘판단’, ‘평가’ 등은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노드들로, 이들은 타당성 관련 교육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출현 빈도 1위인 ‘글’보다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주장’, ‘근거’는 더 낮은 빈도로 출현하면서도 영향력이 높은 단어들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타당성 관련 의미연결망에서 ‘신뢰성’과 ‘공정

위 높아졌음을 ‘18↑’로 나타내었다.

성'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2>에는 없지만 <표 3>에 새롭게 나타난 '합리', '기준', '파악' 등은 출현 빈도에 비해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2>는 '타당성'의 의미연결망을 시각화한 것으로, 각 노드 간 링크의 너비는 연결 강도와 비례한다. '타당성'이 '주장', '근거', '평가', '판단' 등과 높은 강도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타당성'이 '글'과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주장', '근거' 등을 매개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과 '내용'의 연결 강도가 '타당성'과 '형식'의 연결 강도보다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타당성이 담화 텍스트의 유형과 같은 글의 형식적 측면보다 내용 층위, 즉 주장, 근거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실증적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림 2> '타당성'의 의미연결망

또한 ‘타당성’이 ‘신뢰성’, ‘공정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타당성’과의 공출현 빈도가 높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타당성’ 인접 어휘의 공출현 빈도

순	키워드	Weight	순	키워드	Weight
1	근거	20	9	논거	5
2	주장	17		문제	5
3	판단	15	13	합리	4
4	신뢰성	11		바탕	4
5	공정성	9		기준	4
	내용	9	16	말	3
7	평가	8		글쓴이	3
8	제시	6		비판	3
9	이해	5		표현	3
	분석	5		파악	3

<표 4>에 제시한 단어들은 ‘타당성’과 한 문장 내에서 동시에 3회 이상 나타난 단어들로, 실제로 ‘근거’, ‘주장’에 이어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타당성’과의 공출현 빈도가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⁸⁾ <표 2>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글’, ‘설득’, ‘토론’, ‘자료’ 등은 <표 4>에 나타나지 않고, ‘신뢰성’, ‘공정성’, ‘분석’, ‘논거’, ‘기준’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타당성이 담화 텍스트의 유형, 즉 형식보다는 담화 텍스트의 ‘내용’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으로 확인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진술을 몇 가지

8) ‘근거’는 20번, ‘주장’은 17번 ‘타당성’과 같은 문장에 함께 나타났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 성취기준: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 성취기준 해설(일부): … 광고나 홍보 등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말의 주장이 신뢰성, 타당성, 가치성,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따져 보고, 논리적인 이성보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자극을 하지 않는지 평가하면서 들도록 한다.

2009 개정 듣기·말하기 5~6학년군

- 성취기준: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는다.
- 성취기준 해설(일부): … 다양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비판적 듣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비판적 듣기를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신뢰성,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타당성,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공정성 등의 평가 기준을 익힐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화법] 고등학교 국어2

- 성취기준: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 성취기준 해설(일부): …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대해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

2015 개정 듣기·말하기 중학교 1~3학년군

결국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타당성은 신뢰성, 공정성 등과 함께, ‘비판적 이해와 설득적 표현을 위해 학습자가 판단, 평가하는 담화 텍스트의 속성’이며, 설득적 담화 텍스트의 핵심 내용인 ‘주장과 근거의 평가 기준 또는 성립 요건’으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론적, 학술적으로 타당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타당성 관련 진술과 용어의 활용은 상당 정도 합의된 개념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적절성의 개념 검토

적절성을 중심으로 선별한 교육과정 진술에 출현하는 키워드들을 빈도 순으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추출된 단어는 589개이며, 빈도 백분율(%)은 추출된 단어 전체 빈도수(2,992건)에 대한 비율이다.

<표 5>에 ‘주장’과 ‘설명’, ‘대화’와 ‘발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성의 개념은 특정 담화 텍스트 유형이나 장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용’과 ‘표현’도 나란히 나타나고 있어 키워드들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설득적 담화 텍스트와 관련된 키워드로 일관성을 보였던 ‘타당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표 5> 적절성 관련 키워드 출현 빈도 및 비율⁹⁾

순	키워드	빈도(%)		순	키워드	빈도(%)	
1	글	170	(5.7)	18	설명	32	(1.1)
2	적절	76	(2.5)	19	평가	29	(1.0)
3	내용	69	(2.3)		주장	29	(1.0)
4	표현	65	(2.2)	21	능력	29	(1.0)
5	방법	62	(2.1)	22	독자	2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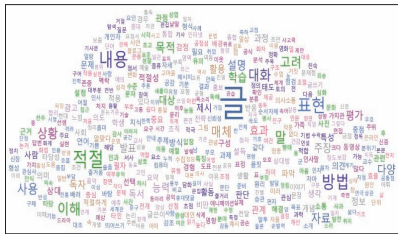
9) 적절성은 그간 교육과정 내에서 ‘적절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적절하게’, 그리고 ‘적절히’ 등과 같은 용어로 제시되었으며, 자주 언급되었지만 그 개념이나 범위가 불분명하였다(오현진, 2008 L: 182).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의 개념 및 활용 양상을 이들 용어들을 함께 논의해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적절성’뿐만 아니라 ‘적절(하다)’(적절한, 적절하다), ‘적절하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6	이해	49	(1.6)	23	발표	25	(0.8)
7	말	47	(1.6)		대상	25	(0.8)
	대화	47	(1.6)	25	활용	24	(0.8)
9	고려	42	(1.4)	26	제시	23	(0.8)
10	사용	41	(1.4)		독서	23	(0.8)
	매체	41	(1.4)	28	정보	19	(0.6)
12	상황	39	(1.3)		관계	19	(0.6)
13	목적	38	(1.3)		과정	19	(0.6)
14	자료	36	(1.2)	...			
15	효과	33	(1.1)	35	적절성	16	(0.5)
	학습	33	(1.1)	...			
	다양	33	(1.1)	66	적절하게	10	(0.3)

이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타당성 관련 어휘 빈도를 보여주는 <그림 3>에 비해 적절성 관련 어휘 빈도를 나타내는 <그림 4>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키워드가 적고, 적절성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도 부족하다.



<그림 3> '타당성' word cloud



<그림 4> '적절성' word cloud

적절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이젠벡터 중심성을 토대로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고, 아이젠벡터 중심성에 따라 30위까지의 키워드를 <표 6>

에 제시하였다. ‘방법’, ‘표현’, ‘내용’, ‘사용’, ‘고려’, ‘설명’, ‘목적’, ‘상황’, ‘매체’, ‘독서’, ‘자료’ 등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절(하다)’의 중심성 지수가 ‘적절성’의 중심성 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적절(하다)’의 출현 빈도가 ‘적절성’보다 약 5배 높게 나타난 것(〈표 5〉)을 상기하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적절성의 개념은 ‘적절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절(하다)’의 형태로 더 많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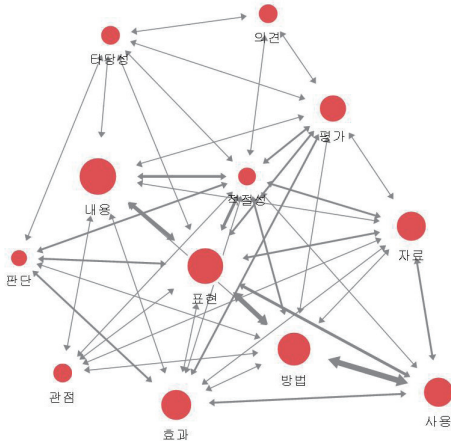
〈표 6〉 적절성 관련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변화	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변화
1	글	0.462	=	16	효과	0.115	1↓
2	적절	0.337	=	17	다양	0.110	2↓
3	방법	0.318	2↑	18	독자	0.109	4↑
4	표현	0.251	=	19	대상	0.106	4↑
5	내용	0.245	2↓	20	특성	0.102	9↑
6	사용	0.237	4↑	21	제시	0.079	5↑
7	이해	0.180	1↓	22	대화	0.079	15↓
8	고려	0.176	1↑	23	방식	0.078	6↑
9	설명	0.169	9↑	24	활용	0.076	1↓
10	목적	0.151	3↑	25	평가	0.073	6↓
11	상황	0.151	1↑	26	적절성	0.070	9↑
12	매체	0.148	1↓	27	정보	0.069	1↑
13	독서	0.144	13↑	28	말	0.068	21↓
14	자료	0.136	=	29	필자	0.061	25↑
15	주장	0.117	4↑	30	발표	0.058	7↓

10) ‘적절(하다)’의 여러 형태 중 교육과정에서 서술어, 즉 ‘적절하다’로 진술된 경우는 2회에 그친다. 그러므로 사실상 〈표 5〉의 ‘적절’은 대부분 ‘적절한’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이를 품사 차원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타당성’의 출현 빈도 비율 (3.9%), 중심성 지수(0.427), 순위(2위)와 비교해도 ‘적절성’의 지표와 순위는 낮다. ‘적절성’은 교육과정 주요 용어인 ‘타당성’과 비교해도, 적절성의 개념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적절(하다)’에 비해서도 그 위상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적절성’과 ‘적절(하다)’ 두 단어의 어휘 네트워크 및 각 단어와 관련된 교육과정 진술의 특징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성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선 ‘적절성’의 의미연결망(〈그림 5〉)과 인접 어휘의 공출현 빈도(〈표 7〉)를 살펴보았다.



〈그림 5〉 ‘적절성’의 의미연결망

〈표 7〉 ‘적절성’ 인접 어휘의 공출현 빈도

순	키워드	Weight
1	내용	8
2	표현	7
3	평가	6
	판단	6
5	자료	5
	방법	5
7	효과	4
8	타당성	3

〈그림 5〉와 〈표 7〉을 〈표 6〉과 비교하면 ‘적절성’이 ‘평가’, ‘판단’과 높은 강도로 연결되고 이들의 공출현 빈도 역시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절성’의 의미연결망과 공출현 단어쌍의 목록에 ‘타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적절성’이 ‘평가’와 ‘판단’, ‘타당성’과 함께 나타나는 교육과정 진술을 확인할 수 있

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 즉 관련 당사자의 입장이나 여건, 사안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 의견에 대한 이유의 적절성, 의견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피고 이들 요인에 비추어 그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2009 개정 읽기 초등 3~4학년군 성취기준해설

- [6국02-04]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2015 개정 읽기 5~6학년군 성취기준

- …광고 등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담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판적 태도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따져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09 개정 읽기 중학교 1~3학년군 성취기준해설

- …주장이나 정보의 확인, 내용의 적절성 평가 등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등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2015 개정 읽기 중학교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 사항'

이들 진술에서 '적절성'은 '의견에 대한 이유', '표현', '내용' 등과 연결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적절성'을 포함하는 진술에는 대부분 '~의 적절성'과 같은 형식이 나타난다. 앞서 살핀 분석 결과와 같이, '적절성'과 '평가', '판단'이 공출현하는 진술에는 '적절성'이 '타당성'과 단어쌍을 이루어, 함께 평가와 판단의 대상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적절성'은 '타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념상 일부 교집합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적절(하다)’의 의미연결망과 어휘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표 8>은 ‘적절(하다)’의 인접 어휘(weight 3 이상)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6>은 ‘적절(하다)’의 의미연결망이다.

〈표 8〉 ‘적절(하다)’ 인접 어휘의 공출현 빈도

순	키워드	Weight	순	키워드	Weight
1	방법	20	19	관계	4
2	표현	15		적용	4
	글	15		선정	4
4	상황	13		방식	4
5	사용	12		전략	4
6	내용	11	24	감정	3
7	대상	7		언어	3
	독서	7		독자	3
	설명	7		반응	3
	이해	7		개념	3
	선택	7		이유	3
	고려	7		대화	3
13	매체	6		능력	3
	효과	6		몸짓	3
	활용	6		말투	3
16	근거	5		판단	3
	자료	5		표정	3
	목적	5			

‘적절성’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훨씬 다양한 단어들이 ‘적절(하다)’와

제시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 …말이 미칠 영향, 과정, 결과 등을 예측하면서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말하는 과정과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2009 개정 듣기·말하기 중 1~3학년군 성취기준해설

-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여러 독서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글을 읽어서 자율적인 독서의 생활화를 이루도록 한다....

2009 개정 10학년 '목표'

- 독자에게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 주제, 독자, 글의 관습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009 개정 고등학교 [작문] 성취기준해설

이 진술들에서 '적절한'의 앞에 의사소통 맥락이나 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건이 함께 진술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적절성 관련 의미연결망에서 중심성 지수가 높은 어휘('방법', '사용', '매체', '상황', '목적', '독자', '활용' 등)는 의사소통 맥락과 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의미나 구체적인 수행의 양상 등이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음 교육과정 진술에서 '적절한'은 '인사말', '표현 방식' 등과 결합하고 있다. ㉠에서 '적절한'은 '인사말'을 수식, 한정하고, 이를 통해 '인사말'은 '상황이나 상대와의 관계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인사말'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나 수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단지 '어떤 맥락에 알맞은'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적절한 표현 방식' 역시 뒤의 '신중하게 말하기'를 고려하더라도 명확한 수행

수준이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적절한 인사말은 상황이나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말이 미칠 영향, 과장, 결과 등을 예측하면서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말하는 과정과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

2009 개정 듣기·말하기 1~2학년군 성취기준해설

- ㉡...말과 글로만 발표할 때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의 효과 차이를 알고, 적절한 매체 자료를 발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구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

2009 개정 듣기·말하기 중학교 1~3학년군 성취기준해설

담화 유형을 고려하면 ㉡의 ‘적절한’은 발표 내용 전달에 ‘효과적인’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체 자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적절한’은 맥락, 조건을 밝히는 어휘들과 함께 학습 요소를 수식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개념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인다.

결국 적절성의 개념은 ‘적절(하다)’와 ‘적절성’이 소통 맥락과 친연성이 높은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여 맥락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적절성의 개념은 맥락을 포괄하는 기준이나 요건으로서 ‘타당성’이 담지 못하는 개념을 담기도 하지만 설득적 담화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의 맥락에서는 평가 및 판단의 대상으로서 ‘타당성’과 일정 부분 의미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적절성의 개념에는 ‘효과성’, ‘정확성’(오현진, 2008ㄴ)뿐만 아니라 ‘알맞음’, ‘합리성’, ‘적당함’ 등의 개념도 혼재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적절성의 개념을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용어 중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 및 활용 양상을 각 용어의 기반 이론 검토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두 용어는 일부 공통되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그 개념과 활용 측면에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용어가 아닌 설득적 담화 텍스트와 관련된 용어로서 ‘타당성’은 이론적, 학술적으로 확립된 개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설득적 담화 텍스트의 내용을 평가,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타당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타당성은 신뢰성, 공정성 등과 함께, ‘비판적 이해와 설득적 표현을 위해 학습자가 판단, 평가하는 담화 텍스트의 속성’이며, 설득적 담화 텍스트의 핵심 내용인 ‘주장과 근거의 평가 기준 또는 성립 요건’의 개념으로 진술되고 있었다.

적절성은 ‘적절(하다)’와 ‘적절성’이 함께 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단어의 출현 빈도와 타 어휘와의 결합 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단어 모두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다양한 어휘 및 학습 요소들과 결합하여 중층적이고 맥락 의존적으로 적절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적절성’의 위상이 낮은 이유인 동시에, 국어과 교육과정이 특정 맥락에서 요구하는 수행의 요건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교육과정 진술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성 개념을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적절성’과 ‘적절(하다)’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한’, ‘적절성’ 등을 모호하고 이상적, 추상적 개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국어과의 주요 용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적절성 관련 진술에 타당성이 자주 공출현하는 것처럼 두 용어는 상호 배치되거나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이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도 간혹 혼란스럽게 진술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적절한 근거’와 ‘타당한 근거’가 함께 쓰이고, 적절성이 타당성을 전제로, 혹은 그 반대로 성립한다는 진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앞으로 두 용어의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교육과정이 이를 근거로 진술되어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주체들 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 이어 두 용어의 국어과 하위 영역별 개념과 활용 양상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구어와 문어, 이해와 표현, 문학 작품의 수용, 언어 규범 등의 맥락에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논의는 향후 각 영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22.05.08 투고되었으며, 2022.05.14 심사가 시작되어 2022.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어과 교육과정(제2012-14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1992 ㄱ), 『중학교 교육과정(제1992-11호)』, 서울: 교육부.
교육부(1992 ㄴ), 『고등학교 교육과정(제1992-19호)』, 서울: 교육부.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제1997-15호)』, 서울: 교육부.
교육부(2015 ㄱ),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교육부(2015 ㄴ), 『국어 6-1 ㉠교사용 지도서』, 서울: (주)미래엔.
문교부(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제350호)』, 서울: 문교부.
문교부(1979), 『중학교 교육과정(제350호)』,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1 ㄱ), 『중학교 교육과정(제442호)』,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1 ㄴ), 『고등학교 교육과정(제442호)』,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8 ㄱ), 『중학교 교육과정(제88-7호)』,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8 ㄴ), 『고등학교 교육과정(제88-7호)』, 서울: 문교부.

학술 논문 및 단행본

- 기혜선·정옥년(2021), 「국내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특징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독서연구』 58, 265-290.
김경화(2020),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42, 645-684.
김광혜·권재일·임지룡·김무림·임철성(1999), 『국어지식탐구』, 경기: 박이정.
김명숙·박정·김광수(2001), 『사고력 검사 개발연구(I): 비판적 사고력 검사 예비 문항 개발편 (연구보고 RRE 2001-6)』,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미선(2015), 「대학생들의 듣기 능력 구성 요인 분석」, 『어문론집』 64, 413-436.
김봉순(2008), 「독서교육에서 비판의 성격과 지도내용」, 『독서연구』 19, 167-196.
김유미(2015), 「텍스트 선정이 비판적 읽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어교육연구』 51, 49-80.
김재봉(2019), 「비판적 듣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29, 7-42.
김재봉(2021), 「대립토론의 반박하기 활동을 통한 비판적 듣기 능력 향상 방안」, 『한국어교육연구』 14, 1-17.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 15, 273-317.
서영미·김경숙(2021), 「고등학생 대상 비판적 사고력 증진과 자기목소리 내기 읽기·쓰기 연계 수업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729-741.
노들·육현진(2020),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비교 분석 -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5), 103-129.
노들(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 국어교육에 주는

-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75, 199-238.
- 민병곤(2004),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학연구』 18, 184-222.
- 민병곤(2018), 「구성요소 중심의 화법 유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뉴스 기사에 반영된 유명인의 화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2, 369-398.
- 박기현(2016), 「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한 구비문학 자료의 이해」, 『동남아문논집』 1(42), 67-87.
- 박선환(1999),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민(2004), 「국어과 교육과정 용어의 진술과 개념-통일성, 응집성, 일관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1, 181-206.
- 박영순(2007), 『한국어 화용론』, 경기: 박이정.
- 백혜선(2019),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쓰기 교육 방안 탐구-쓰기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국어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편,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1), 297-298.
- 서영미·김경숙(2021), 「고등학생 대상 비판적 사고력 증진과 자기목소리 내기 읽기·쓰기 연계 수업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729-741.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서울: 대교출판.
- 성일제·곽병선·박태구·임선하·양미경·한순미·김정래·이혜원(1987),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RR87-37)』,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안부영(2009), 「비판적 읽기」 개념 재정립에 대한 논의, 『한국초등국어교육』 40, 97-118.
- 오현진(2008 ㄱ), 「말하기·듣기 교육에서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현진(2008 ㄴ), 「말하기·듣기 교육과정에 제시된 ‘적절성’에 대하여」, 『화법연구』 13, 181-206.
- 유성호·유충열·박영민(2004), 「학습용어 설정을 통한 국어교과서 진술의 개선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30, 53-89.
- 유영의·장운호(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아동문학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23(3), 164-185.
- 이성규(2008),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과교육연구』 15, 33-69.
- 이성영(1994),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상(2013),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재원(2001), 「드 보그랑데/드레슬러(1981)의 텍스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11, 279-302.
- 이정찬(2016), 「논증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403-426.
- 이정찬(2018), 「작문 교육과정에서의 주요 용어 및 개념 연구-제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 교육과정까지 ‘문종 분류’ 및 ‘내용의 조직’을 중심으로, 『리더서연구』 9(4), 269-299.
- 임규홍(2002),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쓰인 언어학 용어에 대한 연구」, 『어문학』 77, 175-200.
- 장성민(2021), 「좋은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리더서연구』 12(1), 403-426.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의 본질적 개념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속기(2019),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작문 영역 주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람 어문교육』 72, 281-303.
- 최지현(2005), 「중등학교 문학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용어 선정 및 범주화에 관한 연구 (Ⅰ)」, 『문학교육학』 17, 331-426.
- 최지현(2006), 「중등학교 문학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용어 선정 및 범주화에 관한 연구(Ⅱ)」, 『문학교육학』 20, 199-296.
- 편지윤(2021), 「초등국어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탐색 - 토목모델링과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41, 285-311.
- 허경철·김홍원·조영태·임선하·양미경·한순미(1990),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Ⅳ)(RR90-17)』,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Austin, J. L. (1992), 『말과 행위: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김영진(역), 서울: 서광사 (원서출판 1962).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oom, B. S. & Committee of College and University Examiners. (1964),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2), New York, NY: Longmans, Green.
- Canale, M. (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Language and communication* 1(1), 1-47.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elce-Murcia, M. (1995), "The elaboration of sociolinguistic competence: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699-710.
- D'Angelo, E. (1970), "The teaching of critical thinking through literature", *Elementary English* 47(5), 633-637.
- Ennis, R. H. (1962), "A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1), 81-111.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Freeman, L. C. (2004),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Science*, Vancouver: Empirical Press.

- Haack, S. (1986), 『논리철학』, 김효명(역), 서울: 서광사(원서출판 1978).
- Hymes, D. H. (1971),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London: Penguin Books.
- McPeck, J. E. (1981),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 Opsahl, T., Agneessens, F., & Skvoretz, J. (2010), "Node centrality in weighted networks: Generalizing degree and shortest paths", *Social networks* 32(3), 245-251.
- Paul, R. & Elder, L. (1990), *Critical thinking*, Rohnert Park, CA: Sonoma State University.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 Wilson. D. (1993), 『인지적 화용론: 적합성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김태욱·이현호(역), 서울: 한신문화사(원서출판, 1986).
- Trask, R. L. (1999), *Key Concept in Language and Linguistics*, New York, NY: Routledge.
- Widdowson, H. G. (2001), 『언어학』, 유석훈(역), 경기: 박이정(원서출판 1996).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 검토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김희동 · 백목원 · 오은하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타당성과 적절성의 개념 및 활용 양상을 각 용어의 기반 이론 검토와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타당성은 신뢰성, 공정성 등과 함께 ‘비판적 이해와 설득적 표현을 위해 학습자가 판단, 평가하는 담화 텍스트의 속성’이며, 설득적 담화 텍스트의 핵심 내용인 ‘주장과 근거의 평가 기준 또는 성립 요건’이라는 일정하게 합의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하다)’와 ‘적절성’이 소통 맥락과의 친연성이 높은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면서 중층적으로 적절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었다.

두 용어는 의미를 공유하기도 하고 교육과정에 공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절성은 타당성에 비해 개념이 혼란스럽게 진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두 용어의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진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국어과 교육과정, 타당성, 적절성, 언어 네트워크 분석

A Study of the Concept of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Kim Heedong · Baik Mokwon · Oh Eunha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s and uses of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rough a review of the underlying theory of each term, a semantic network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validity is mainly refers to a uniformly agreed concept of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ssertions and grounds of persuasive discourse texts, a criterion for evaluating them, and property of discourse texts that learners judge and evaluate for critical understanding and persuasive expression.” In addition, ‘appropriateness’ and ‘appropriate’ were combined with various vocabularies with high affinity with the communication context, forming the concept of appropriateness in layers.

The two terms shared some meanings and co-appeared. Nevertheless, it is stated confusingly with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the future, a clear concept of the two term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curriculum should be sta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follow-up discussion was suggested.

KEYWORDS Korean Language Curriculum, Validity, Appropriateness, Semantic Network Analysis